

“그림은 중독성 있는 친구이자 연인... 무한한 창작세계로 몰입”

김25작가, 9~10월 ‘키아프·서울 금산갤러리·광주아트페어’ 참여 화려한 색채·질풍노도 파도 겹쳐진 ‘화폭의 바다’ 예술 열정 보여줘

김25(본명 김유미) 작가는 ‘바다를 닮은’ 예술가다. 얼핏 팔색조의 바다 이미지가 느껴진다.

평소 우리가 보는 자연으로서의 바다는 더없이 평온하다. 많은 것을 포용하며 생명성을 견지한다. 그러나 폭풍이 일 때 바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격노하는 바다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한다.

바다가 지닌 다채로운 이미지와 서사를 작품에 투영해온 김25 작가. 어쩌면 그의 내면에도 상반되는 바다의 모습들이 출렁이고 있는지 모른다. 화려한 색채와 질풍노도의 파도가 겹쳐진 ‘화폭의 바다’는 일견 예술에 대한 열정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작가는 한동안 ‘신비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물결의 움직임과 상응시키고 시어로 세기는 작업’에 빠져 있었다.

김 작가는 올 가을 여는 때보다 분주하다.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동시대성 등을 엿볼 수 있는 3개의 전시에 참가한다. 한국국제아트페어인 키아프(KIAF·9월 4일~8일)를 비롯해 서울 금산갤러리 개인전(10월 4일~25일), 광주아트페어(10월 10일~13일)가 그것.

그는 “KIAF는 여러 해 동안 금산갤러리 소속 작가로 참가했었다”며 “이번에는 ‘마스터 피스존’으로 편입돼 레전드 작가 선생님을 작품과 나란히 전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터 피스존’은 화랑들이 정한 존으로 유명한 레전드 작가들 작품을 거는 공간”이라며 “이우환, 박서보 작가 등의 작품이 걸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족하지만 제 작품도 그 존에 걸린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금산 갤러리는 작가가 소속된 화랑이다. 해마다 한 번씩 전시를 하는데 올해는 10월 초·중순에 관객들을 맞는다.

광주 아트페어는 오랜만에 화랑 작가(금산갤러리)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에서 여러 번 전시를 했지만, 올해는 아트페어를 매개로 관객들을 만나는데, 금산 부스 개인전과 더불어 컬렉터 소장품 부스에도 작품이 걸린다.

3개 전시에는 올봄 뉴욕 전 이후 작업한 60여 점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우하다’ 시리즈 이후 작업해 온 ‘노아의 방주’ 편과 신작 ‘Cast a Spell’(주문을 외우다) 시리즈 일부다. 작가는 이들 작품을 세 군데 공간에 배분해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관람객들이 ‘바다’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에서 어떤 매력을 느낄까라고 물었더니 “바다는 상상과 소멸의 장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고향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답이 돌아왔다. 한편으로 “흐르는 찰나의 감성에 서정과 서사를 덧입히는 특유의 분위기” 때문일 것도 같다고 했다.

김 작가는 6~7년 가까이 바다를 그리고 있다. 바다에 몰두하는 것은 언급한 대로 내면에 변화무쌍한 생명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일 터다.

“파도가 된 시, 그림이 된 텍스트는 파도라는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 나의 주관적 감정, 내적인 정서를 서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어요. 글씨는 좋아하는 문학작품의 텍스트들인데 ‘모비딕’, ‘어린 왕자’,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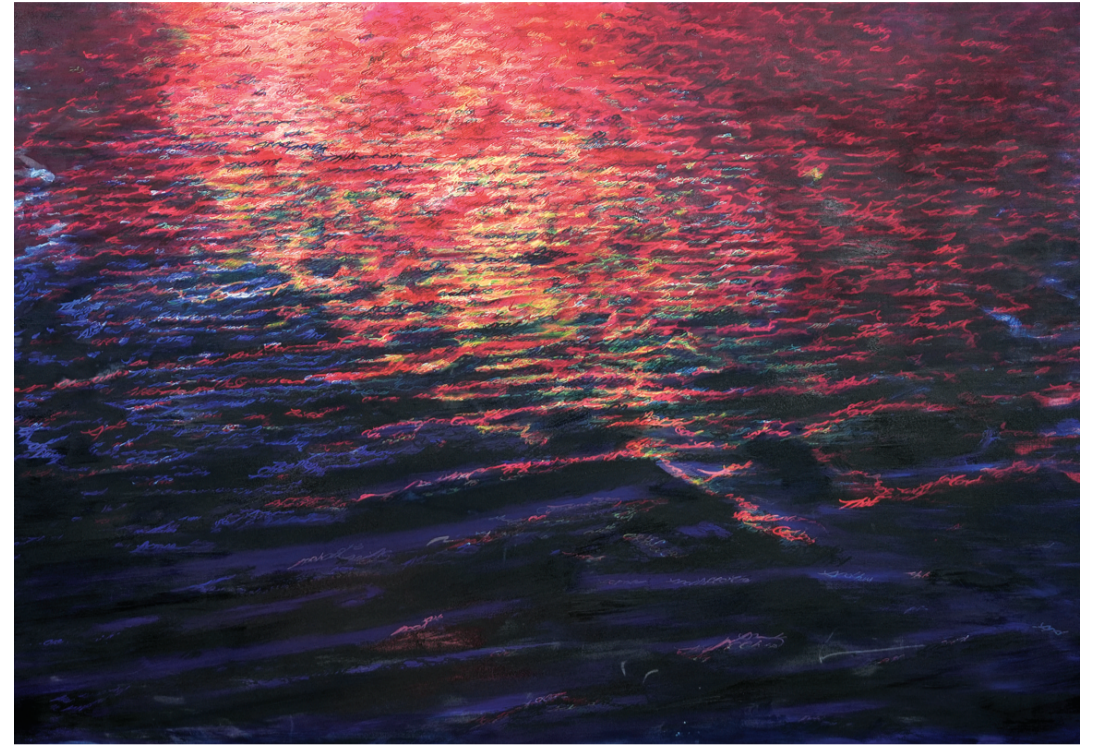


김25 작가

인과 바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시가 그것들이죠. 이전의 바다가 서정과 영속성, 소통이나 포용의 공간이었다면 최근 ‘방주’ 시리즈는 서정에서 시각적 내러티브(서사)로 변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작품들은 다분히 철학적이다. 깊은 사유는 문학이라는 경계를 넘어 신화로 확장된다. 인류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차원 높은 고민을 넘어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주제로까지 이어진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파생되는 바람과 높은 파도는 종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연상에서 ‘노아의 방주’ 시리즈를 해왔으



‘노아의 방주’

〈김25 작가 제공〉

며, 이후 구원 문제는 작품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자못 주목된다.

김 작가는 작품을 구상할 때 “스스로 미친 듯이 몰입해” 사고의 확장을 시도한다. 무한한 세계는 물입의 깊이와 확장이라는 넓이를 토대로 다가갈 수 있다. 그것은 더러 고통과 많은 에너지가 수반되는 과정이지만 창작의 희열로 귀결된다.

“저에게 그림은 중독성 있는 친구이자 연인이죠. 어떤 때는 말 잘 듣는 남자친이기도 했다가 속 썩이는 연인 같기도 하고요. 뭐랄까, 달콤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밀당하는 사이랄까요.”

구상 중인 작품을 물었다더니 “이전에도 시리즈가 끝나면 그것을 자르고 합치는 작업을 선보였다”며 “그 맥락이 이어 바다 시리즈에서도 이미지 편집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당분간은 바다와 지구, 종말, 구원 등 거대 담론을 매개로 한 연속적인 서사가 펼쳐질 것 같다. 그는 여전히 바다에 잠겨 있다.

한편 김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아트 바젤, 아트 마이애미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채로운 캘리그래피...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

11월24일까지 ACC 亞문화박물관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튀니지 출신 프랑스 작가 엘시드는 캘리그래피 예술가다. 특히 캘리그래피와 그래픽이 합쳐진 새로운 형식의 작업을 매개로 캘리그래피의 영역을 확장했다.

그의 대표작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Open your mind)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지역에 설치된 작품이다. 누구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자는 의미와 함께 캘리그래피 예술성을 있는 그대로 보달라는 뜻이 함의돼 있다.

아랍 캘리그래피의 다채로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를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2관(11월 24일까지)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역사성을 인정받은 아랍 캘리그래피의 다양한 서체를 만난다. 14세기 제작된 국립세계문화유산 소장 규판의 영인본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시는 ‘캘리그래피로 다시 태어난 아랍문자’ ‘서체와 도구로 살펴보는 캘리그래피’ ‘일상 속에



엘시드 작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ACC 제공〉

빛나는 예술, 캘리그래피’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 작가 엘시드의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도 공개될 예정이다. 서남아시아 문화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다.

개막일 22일에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진다. 부산외국어대 지중해지역인 윤용수 교수의 강의는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전시와

맞물려 캘리그래피 시연, 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이름을 써주는 행사 등이 그것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서남아시아의 문화를 캘리그래피를 모티브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라며 “아랍문화권 문자에 대한 강의로도 듣고 직접 쓰는 시연도 보면서 서남아시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후위기·환경보호 메시지 담은 클래식 무대

31일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

기후 위기 등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인류가 어떤 태도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클래식으로 답하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예나엔터테인먼트가 ‘에코클래식-자연의 부재’를 오는 31일(오후 5시)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연다. 지난해 시리즈 첫선 ‘물’에 이은 두 번째 기획이며 환경보호 메시지와 음악회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바흐 ‘관현악 모음곡 3번’으로 막을 올린다. ‘G선상의 아리아’로 편곡된 2악장(‘에어’)으로 인해 관현악 전곡 가운데서도 가장 알려졌으며 장엄하면서도 화사한 매력에 깃들여 있다. 바흐가 라이프치히에 머물던 1729년~1739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

4분 33초 동안 연주를 멈추고, 공연장에 감도는 관객들의 숨소리 등으로 사운드를 채우는 전위적 작품 ‘4분 33초’는 존 케이지의 곡이다.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 악보에는 ‘TACET(조용히)’이라는 글만 쓰여 있으며 오선지 위에는 어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진행했던 ‘지휘자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공연 장면. 〈이현민 지휘자 제공〉

떤 음표도 없다. 침묵 속에서 관객들과 연주자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철학적 의미로 환원하는 작품이다.

끝으로 임주연 협연으로 피아졸라 ‘사계’를 들려준다. 광주솔로이스츠 앙상블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주자 등이 협연하며 지휘를 맡은 이현민이 직접 곡에 대한 해설을 통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다. 이현민 지휘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변화를 마주하는 요즘, 광주 또한 물부족이나 폭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음악을 통해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터전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마이펫의 이중생활2’ 달빛극장에서 같이 봐요

30일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장

“아외 광장에서 영화도 보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즐기세요.”

광주시 북구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달빛 극장’을 오는 30일 오후 6~9시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장에서 진행한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비롯해 크리스 리노드의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2’를 상영하는 행사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달빛 극장’은 문화체험 및 영화관람 시간으로 채워진다. 머그컵 채색과 예코 북바인딩, 비즈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 스포츠 활동으로 구성된 5개 체험 부스와 아트 퍼포먼스 등을 만날 수 있다. (오후 8시까지 운영)

오후 7시 30분부터는 지난 2019년 개봉한 ‘마이펫의 이중생활2’를 야외 무대에서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펼쳐지는 애완동물들의 비밀스러운 생활기를 다룬 코미디-모험 장르다.

집 걱정에 바람 잘 날 없는 ‘맥스’와 자유로운 영혼 ‘블로이’는 다양한 동물들과 동고동락한다.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2’ 스틸컷.

슈퍼 히어로를 따라 하는 토끼 ‘스노우볼’과 고양이 되고 싶은 강아지 ‘기젤’까지 동물들의 기상천외의 생활을 예고하는 시놉시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추억의 오락실이 갖춰진 ‘아케이드 존’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동화 나라 포토존’, ‘순발력 붓잡기’ 코너 등이 마련된다.

문인 북구정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시민들이 편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료 진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회화·서예·문인화 ‘배동신어등미술제’ 열린다

광산문화원 작품 공모

배동신(1920~2008) 화백은 수채화의 지평을 넓혀온 선구자다. 전통화법과 현대적 회화를 접목하는 등 기법의 조형미를 개척하며 일가를 이루었다.

배 화백은 광주 송정리에서 태어났다. 한약방에서 일하며 가업을 잇길 바랬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술의 길을 걸었다. 16세 때 한국의 명산을 그리기 위해 금강산을 찾았고 우연히 박수근을 만나 사사하고 문학을, 장리석 등과도 교류했다.

‘무등산의 화가’로도 알려져 있는 배 화백은 “무등산은 특히 덩어리가 크다. 무등산이 남도를 상징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의 본질이랄까요”라는 말로 생전 무등산에 대한 의미에 전착했다.

제34회 배동신어등미술제가 열린다.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배동신어등미술제(대회장 오동근·미술제)는 회화, 서예, 문인화를 공모하며 누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참가할 수 있다. 추천·초대 작가의 경우 공모접수 기간과 동일하며 기일 내 작품 이미지 파일을 광산문화원 온라인으로 출품해야 한다.

회화는 9월 26~27일까지이며 작품 이미지 파

일을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1차 이미지 파일(1인 2점 이내, 30호 이상·50호 이내)을 심사 후 2차 실제 작품심사로 진행한다.

서예·문인화 공모는 10월 1일~2일(오후 6시)까지 이머 방문·우편(실제 작품) 접수를 같이 한다. 서예 공모 규격은 (70cm×135cm 전지, 70cm×200cm 국전지), 문인화 공모 규격은 (70cm×135cm 전지)이다.

회화 대상에 300만원 및 개인전 개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특별상에 20만원 등이 수여된다. 서예·문인화 어등대상에 300만원과 개인전 개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특별상에 20만원 등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10월 중순 광산구청 누리집과 광산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품 원서는 공모 마감일까지 광산구청 누리집, 광산문화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시상식 및 전시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동근 광산문화원 대외장은 “이번 배동신미술제는 미술인재 발굴과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며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응모돼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창의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광산문화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